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9월 14일 월요일 발행예정이었던 한성대신문을 한 주 뒤인 9월 21일 월요일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간교수의 편집권 침해와 본교의 취재 간섭으로 한성대신문사는 발행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발행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 “D+, 이걸 재수강도 안 되잖아요”

###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이후 논란 속의 본교

지난해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에서 정원감축안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다. 4% 감축안을 내놓은 본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은 7% 정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어 진행된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평가에서 본교는 8.64%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의 지정을 유예할 수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지난 8월 31일 본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를 받았다. 그동안 학점 세칙이 변경되었고 학사제도가 개편되었다. 보직교수 인적 색신이 이루어지고 구조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학과 구조조정으로 간담회가 열리는 등 본교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본교를 시끄럽게 했던 논란의 시작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맞닿아 있었다. 결국 10%의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며 신규 재정지원사업 참여 역시 제한되었다. 본교는 이렇게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혔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이후 논란 속의 본교, 주요 사건을 한성대신문이 정리했다.

(편집자주)

### 09.03

강신일 총장과 학생대표 간담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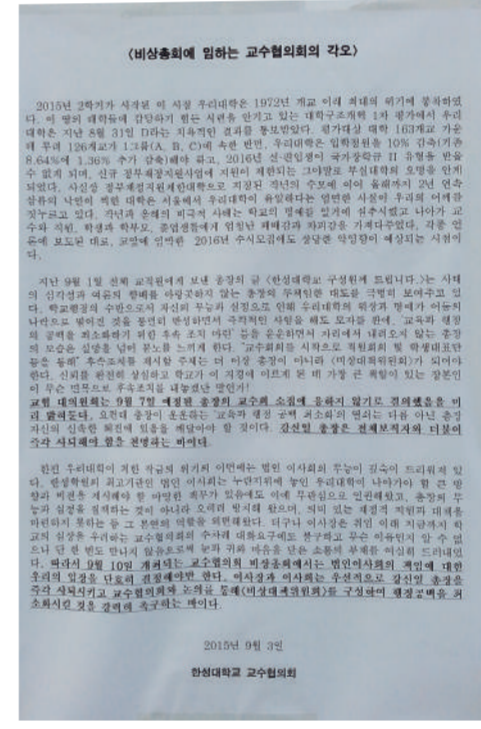
### 09.03

강신일 총장, 낙산의 메아리에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관련, 학생여러분께 드리는 글' 게시



### 09.03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 임하는 교수협의회회의 각오' 성명서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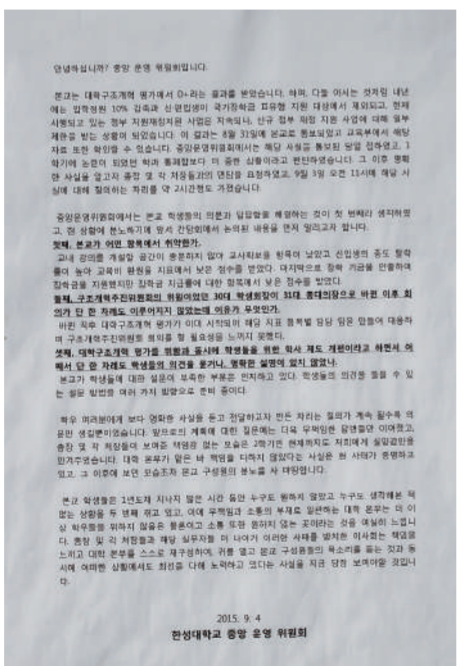


### 08.31

본교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D+'

### 09.04

중앙 운영 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중앙 운영 위원회입니다' 성명서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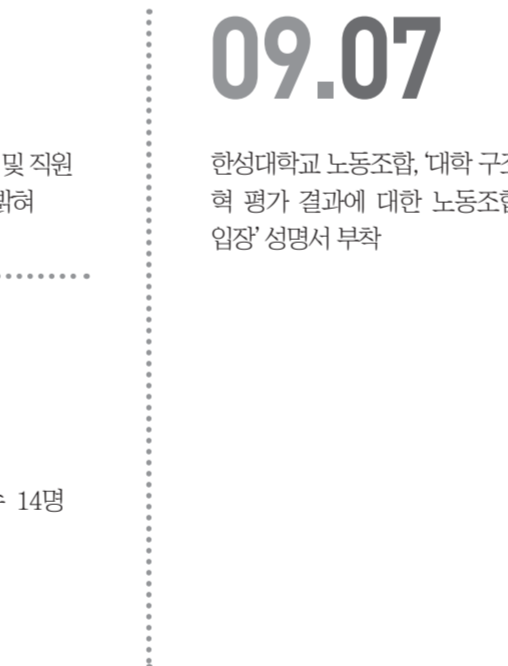


### 09.07

강신일 총장, 전체 교수회의 및 직원 회의에서 총장직 사퇴의사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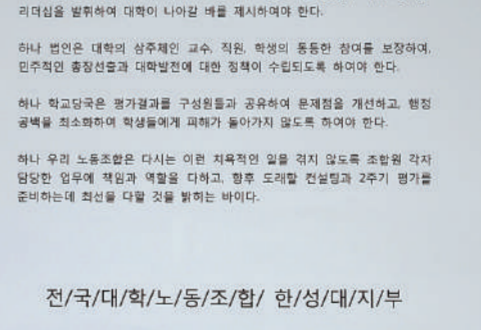
### 09.07

강신일 총장 및 보직교수 14명 사직서 제출



### 09.07

한성대학교 노동조합,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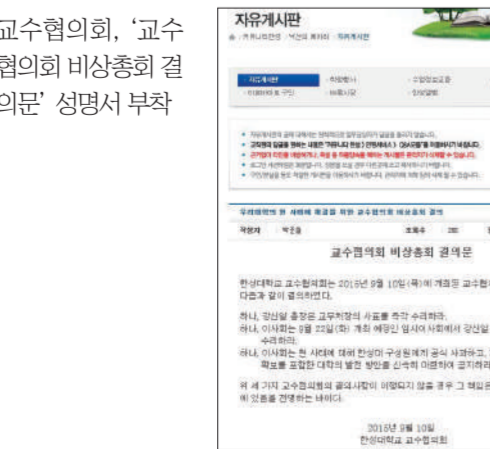
### 09.10

이종훈 이사장과 학생 대표 간담회 진행



### 09.11

교수협의회, '교수협의회 비상총회 결의문' 성명서 부착



### 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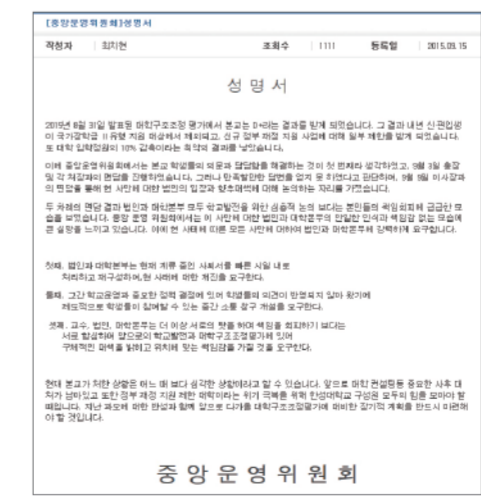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비상대책위원회 명단>

- 비대위원장: 박준철(교수협의회장)
- 비대위원: 인문대\_ 이병문(영어영문학부), 교창수(한국어문학부), 사과대\_ 홍용식(경역학부), 홍병호(무역학과), 예술대\_ 임재영(의류패션산업전공), 이상원(애니·제품디자인전공), 공과대\_ 박영환(산업경영공학), 정영모(정보통신공학)
- 교수협의회 회장단 비대위원: 문귀선, 윤경준, 전완식, 장지영, 노광원, 윤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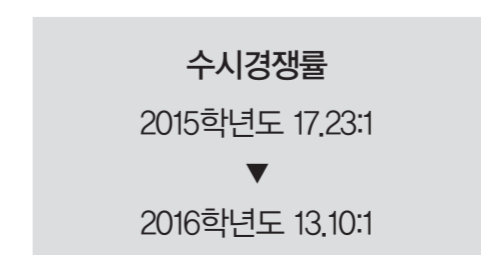
### 09.15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게재



### 09.15

한성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마감



### 지면안내

"D+, 이걸 재수강도 안 되잖아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이후 논란 속의 본교, 본교의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한성대신문이 취재했다.

2면에서는 결국 대학 구조개혁 평가 D+등급을 받은 본교의 평가 결과와 지표를 분석했다.

이어 3면에서는 논란의 소용돌이 속 강신일 총장과 이종훈 이사장, 교수협의회를 만났다.

02~03면에 계속

사회 '인턴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사람 '텐아시아' 가요팀 박수정 기자를 만나다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요'



학술 왕-왕 무인비행체, 드론이 편다!

문화 마법소녀로 변신할거야! 배리가 배리랄라 포포리나 페페루트



### 발행일정

발행호	발행일
507호	10월 12일 (월)
508호	10월 26일 (월)
509호	11월 16일 (월)
510호	11월 30일 (월)

### 사령

임 부장기자 한재원(행정 4)

면 정기자 박중수(부동산 1)

# 결국 ‘낙제점’ 받은 본교, 대학 구조개혁 평가 성적 D+

##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및 신입생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 제한돼

### 서울지역 대학 중 본교 포함 5개교만 그룹 2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전국 일반대학 기준, 별도 조치/평가제외 대학 제외)에서 A등급은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 D등급 26개교, E등급 6개교였다. 이 중 서울지역의 대학은 어떤 성적을 거두었을까? 서울지역 일반대학 전체 34개 학교 중 16개교가 A등급, 9개교가 B등급을 받았다. 전체 서울지역 대학 중

본교는 ‘국가장학금 혜택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걸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로 2016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 노력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의 지원이 제한된다.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장학 예산을 새로 편성해 II 유형 장학금을 예년과 동일하게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본교에서 2016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4~5억’이다.

재학생 A씨는 “그동안 그 ‘대외’를 위해 A학점이 줄고 학과가 통·폐합되어도 참았다. 학교가 이를 계기로 구조개혁 평가라는 난관을 극복 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결국 우리 학교는 부실대학교가 되었다. 여태까지 눈속임만 열심히 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한성대 학생인 것이 부끄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재학생 B씨는 “결국 부실대학이 되었다. 포털에 한성대를 검색하면 부실대학이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인데 학교는 대체 아직도 무엇을 속이고 감추려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교육 ‘수요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와 5개 정성지표(학생 평가,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학생 학습역량 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1개의 정성·정량지표(수업관리)로 세분화된다. 1단계 평가 총 60점 중 정량평가가 41점, 정성평가가 19점에 해당한다. 2단계 40점 역시 정성평가로 평가된다. 41점에 대한 정량 지표는 100% 달성 시 만점을 받는 교사 확보율을 제외하고 수도권 평균값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 이 지표 값을 분석하면 본교가 수도권 평균에서 얼마나 못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성평가에 경우 수도

여 등으로 학교의 노력을 배제하거나 저평가되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도대 학교 역시 본교와 마찬가지로 총장 및 보직 교수들이 사표를 낸 상황이고 학생대표들은 책임을 촉구하는 현수막 및 대자보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경대학교는 지난 8일 진행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했다. 서경대 총학생회는 평가 전후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처장단과 면담을 진행했고, 당시에는 상황 조정될 것을 기대했다고 서경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본교와 마찬가지로 D+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학생대표들에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해, 중장기 계획은 있으나 단기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교직원이나 교수의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아 학생대표들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본교는 지난 3일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우리 대학은 ‘중장기 발전 계획의 적절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고,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부문에서 90점 이상을 받는 등 2단계 평가대상 대학 중 최상위권의 점수를 획득하였고, 2단계 평가 대학 중 평가 결과가 상위 10% 이내에 드는 대학은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는 교육부 평가편람 상의 원칙에 따라 등급 상향을 기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부 재정지원 조건부 제한대학에 포함되었습니다”라고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즉 높은 점수를 받아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교육부에서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 D+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이다.

### <표1> 서울지역대학 34개교 등급별 비율

구분	등급	대학수	비율
그룹 1	B등급	9개교	26.5%
	C등급	4개교	11.8%
	D+등급	3개교	8.8%
그룹 2	D등급	1개교	2.9%
	E등급	1개교	2.9%
합계		34개교	100%

### <표2>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제외	
감축비율	일반	자율감축	4%	7%	10%	15%	7%

73.6%가 상위 등급인 A-B등급을 받았다. 하위 등급인 D-E등급에 속한 서울지역 대학은 총 5개교로 그리스도대(D+), 서경대(D+), 서울기독대(E), 한성신학대(D-), 한성대학교(D+)이다. 서울지역 대학 중 위의 5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두 그룹1(A-C등급)에 속해 등급에 따라 정원만 감축하면 된다.

### 국가장학금 II 유형 제한, 본교 10% 정원 감축해야

각 대학은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받았다. 정원감축 비율은 <표2>와 같다.

그룹 1에 속한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한편, 그룹 2에 속한 대학들은 강도 높은 정원 감축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 받는다. 그룹2의 재정지원 제한 범위는 <표3>과 같다.

이에 따라 D+를 받은 본교는 1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본교는 이미 지난해 8.6%의 정원 감축을 통해 1년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를 받았다. 그 결과 2015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5%를 감축했고, 2016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3.6%를 감축했다. 현재 본교는 ‘정원 10% 감축에 따라 추가로 정원의 1.36%를 감축해 총 166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신·편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수시 모집을 앞두고 구조개혁 평가가 발표됨에 따라

“지정 유예가 본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니다.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조금 늦게 다는 것일 뿐, 심지어 교육부가 목적으로 하는 ‘정원 감축’을 통한 유예이기 때문에 부실대학이라는 명에는 다시 되돌아올 부메랑인 것이다”

-한성대신문 492호 백지 1면 기사 내용 중 발췌

###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 1년 후

본교는 지난해 8월 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소위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 중에서 추가 정원 감축을 통해 지정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내용이다. 본교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 당시 정원 감축을 통한 유예를 택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본교는 결국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다.

지난해 9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 사실을 1면에 보도하려 했으나 기사를 삭제한 채 신문을 발행했다. 이는 한성대신문 사장 초유의 일로, 그만큼 본교가 피하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유예기간동안 학사구조 개편, 학과 통·폐합 등의 진통을 앓았지만 본교가 피하고자 했던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를 결국 마주하게 되었다.

### <표4> 본교 대학 구조개혁 정량평가 지표 분석 (2개년 추정순위)

우선순위	1		2		3		4		총평/비고	
	정량지표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급률)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평가기준 년도 본교 지표값	2013~2015년	84.0%	2012~2014년 결산	136.4%	2012~2014년	15.3%	2013~2014년	건보 및 국제DB, 건보 유지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은 실질적으로 3년치 반영됨 * 서울소재 남녀공학 대학 중 최하위권 수준	
지표별 순위 (2개년 평균 추정치)	전국대학	157/164 (96%)	전국사립대	92/137 (67%)	전국대학	144/164 (88%)	수도권대학	56/59 (95%) *6/1 취업률 기준		
우선순위	5		6			7		총평/비고		
	정량지표	학생 충원율 (신입/재학생)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강의규모의 적절성	시간강사 보수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평가기준 년도 본교 지표값	2013~2015년	신입생: 99.2% 재학생: 100.6%	2012~2014년	59.4%	2012~2014년	0.309	2013~2015년	46.7천원	2013~2015년	70.1%
지표별 순위 (2개년 평균 추정치)	수도권대학	신입생 49/59 (83%) 재학생 40/59 (68%)	전국대학	80/164 (49%)	전국사립대	44/137 (32%)				

\* 상기 표 중 지표별 순위는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근거한 추정순위이며 정보공시 시점에 따라 평가기간 3개년 중 가장 최근 1개년 자료를 제외한 2개년 평균 추정치임. (전체 평가 기간 3개년에 대한 지표별 최종순위는 10월 이후 산출 가능)  
\* 우선순위는 본교 정량지표에서 취약한 지표 순으로 나열됨.

### <표3> 그룹 2 재정지원 제한 범위

등급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I 유형	II 유형	일반	돈
D등급	80점 이상	기존사업지원지속 신규사업지원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	-
	80점 미만	기존사업지원지속 신규사업지원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E등급	전면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신편입생 100%제한

권 대학들의 점수를 교육부에서 공개하지 않아 지표별 평균이 없어 점수를 가지고 본교가 어느 수준이냐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표를 통해 정량지표에서 본교가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을 알아보았다.

<표4>는 본교에서 진행한 2개년 자료에 대한 정량지표 추정치이다. 이 1단계 평가 지표 중 본교는 교사 확보율이 가장 취약했으며, 그다음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졸업생 취업률 순으로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

교사 확보율은 대학의 교사시설 확보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교의 교사 확보율은 84.0%를 받아 전국 164개교 중 157등으로 매우 하위권에 속했다. 전국 대학에서 교사 확보율이 100% 미만인 곳이 거의 없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내년 8월 종합관완공 시 110% 이상 달성할 것으로, 2017년 평가부터 산업될 예정이다.

그다음으로 취약한 지표인 교육비 환원율은 등록금 수익 대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돈을 의미한다. 교육비 환원율은 136.4%로 상당히 높은 점수로 보이지만, 전국 사립대 평균은 26% 내리고 장학금은 80억 원 늘렸다. 47.1%였던 취업률도 1년 만에 60.5%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교수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교직원의 임금도 동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 두 대학이 1년 만에 부실대의 불명예를 지울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한 지표 관리와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부실대학의 낙인이 찍힌 덕성여대는 이번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부실대의 오명을 벗었다.

### 잠음 많은 이번 구조개혁 평가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두고 공정성 시비 또한 제기 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4급 이상 고위 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고위직 퇴직자(4급 이상) 대학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위직 퇴직자는 24개 대학, 모두 34명으로 각 대학에서 총장·이사장·교수·감사실장 등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 24개 대학 가운데 22개 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C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배의원은 “이는 세간에 떠도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셈”이라며 “해당 대학이 교육부 직원 관리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등급을 받았다면 교육부가 평가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D+’ 맞은 3개교의 현 상황

본교와 마찬가지로 D+의 오명을 쓴 그리스도대학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질의응답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리스도대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 대학은 3년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13학년도에는 교육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교육부의 잦은 평가 기준 변경과 객관성 결

### 부실대의 오명을 지우고 교육의 질을 높인 대학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다음과 같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가나다순)

앞서 언급한 대학들 중 국민대와 세종대는 부실대학 명단에 올랐던 오명을 1년 만에 지우고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거두었다.

201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국민대는 당시 등록금은 23% 내리고 장학금은 77억 원 늘렸다. 49.5% 수준이던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도 61.6%로 올랐다. 최근 국민대는 2014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연간 40억 원 총 12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국민대와 나란히 부실대의 오명을 썼던 세종대는 당시 등록금은 26% 내리고 장학금은 80억 원 늘렸다. 47.1%였던 취업률도 1년 만에 60.5%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교수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교직원의 임금도 동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 두 대학이 1년 만에 부실대의 불명예를 지울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한 지표 관리와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다.

#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이후 논란 속의 본고

## 강신일 총장과 학생대표의 간담회

### 학생대표와 대학 본부 또다시 간담회 진행해

지난 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종 성적표를 받아든 본고, 본고는 D+를 받았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신입생에게도 영향을 미친 이번 결과, D+ 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두고 9월 3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학생대표와 대학 본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강신일 총장은 “D+를 받은 본고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게 되었다. 본고는 지난해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될 때 86.4%를 감축한 바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1.36%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본고의 정원 감축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6월 진행되는 평가에서 2017년의 재정지원 제한 여부가 다시 한 번 결정 된다”며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본고의 목표는 향후 'C등급'을 받는 것

교육부는 앞으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5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3주기에는 7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신일 총장은 향후 진행될 평가에 대해 “2주기 평가에서 C등급 이상 받지 못하면 앞으로도 10%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고는 하위 등급을 벗어나 C등급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대표 측은 “향후 목표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고는 'C 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며 “더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대체 부족한 지표는 무엇일까?

학생대표 측은 “많은 대학 구성원들은 본고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궁금해한다”면서 “평가 지표 결과에 대해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신일 총장은 “우리 대학은 정량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2단계 평가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지표가 만점을 받았다. 우리 대학이 취약한 부분은 교사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이다”고 답했다.

교육부에서는 평가 결과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가 각 학교별로 통지한 평가 결과는 대외비에 부처진다. 이에 정량 지표의 경우 대학정보공시자료에 근거해 대학별 추정 순위를 가능할 수 있지만 정성 평가 점수는 전국 대학에서의 수준이나 정도를 가능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상평가로 진행되었어야 할 정성 평가가 면접평가로 대체되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1, 2차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평가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 기준과 정성 평가의 결과가 달라져 '부실 평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 국가장학금 II 유형 본고 자체 지급

D+를 받은 본고는 소득과 연계해 지급받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지급받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신·편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또한 향후 진행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본고는 신·편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교비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수시 모집을 앞두고 평가 결과가 공개될 만큼 본고는 이러한 자체 지급을 통해 신·편입생의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대표는 정원 10% 감축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 유형 자체 지급으로 올해보다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은 지적하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대해 강신일 총장에게 물었다. 강신일 총장은 “우선 디자인평생대학원,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정원 외 추가 학생을 많이 모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을 늘리는 것이다. 보통 교수들의 기부가 많았는데 우리학교의 학부 졸업생이 약 2만 5천 명이다. 동문회를 통해 동문들의 기부를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문들의 한성대학교 에듀센터 임대 사업을 할 경우 연간 약 12억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다. 법인의 재정적 도움 역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간담회 이후 강신일 총장은

간담회에서 강신일 총장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하위 등급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 9월 7일 강신일 총장과 보직교수 14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 이종훈 이사장과 학생대표의 간담회

### 이례적인 재단 이사장과 학생대표와의 간담회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 이사장실에서 이종훈 이사장, 최치현(컴공 4)총대의 장, 임병국(경영 3) 졸업위원장, 장승훈(영어영문 4) 학부위원장, 이영민(경영 4) 사과대회장, 임채승(기계 4) 공대회장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본고는 교육부에서 진행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D등급 대학 중 80점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종훈 이사장은 “한성대학교가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성대학교보다 나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재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 대학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변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재단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질 것

이종훈 이사장은 “현재 학교법인 한성학원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재단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번 평가에서 법인 이사회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법인은 2억 5천만 원을 대학에 지원했다. 이를 두고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평가로 미루어 보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많이 지원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평가에서 법인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지표는 없었지만 12개의 평가항목 중 장학금 지급률, 시설·교사 확보율, 등록금 환원율 이 3개 항목에 대해 법인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며 이에 대해 재단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훈 이사장은 “본고의 급내 법인전입금 금액이 서울시내 43개 대학 평균에 못 미친다. 이사회에서는 본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서울시내 대학의 평균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이사회안건에 상정하여 해결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종훈 이사장은 교내 조정사업, 한성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교내 발전에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 책임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부터 책임을 짊어지고, 대학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해 대학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대표 측은 “현재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것 같다기 보다 서로 책임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이종훈 이사장, 총장에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요청해

한편 이종훈 이사장은 지난 9월 1일 강신일 총장을 만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2일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공문의 내용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신입생 모집 전략,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조치 방안’에 대한 세부 일정 보고이다. 이종훈 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번 치욕스러운 결과를 면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치현 총대의장은 “현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만든 장본인인데 장본인들에게 대처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종훈 이사장은 “현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이번 결과에 잘못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들이 2년 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해왔다. 물론 새로운 구성원들이 할 수도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곧 컨설팅 평가를 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도 하고, 이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총장 및 보직교수 사표 수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오는 22일 임시이사회가 열린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총장 및 보직교수들의 사표 수리 여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의 원인과 대책’,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컨설팅 평가 등 기타 전략에 대한 것이 주요 안건이다. 이종훈 이사장은 “지난 9월 7일(월) 교수협의회 임원, 한성대학교 노동조합, 10일(목) 학생대표, 대학원 동정들과의 면담을 통해 22일에 열리는 임시이사회 때 이사장들에게 전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임시이사회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총장 및 보직교수 14명의 사표 수리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교수협의회 인터뷰

지난 8월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본고는 D+등급을 받았다. 그 후 교수협의회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10일(목)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총 재적인원은 185명으로 이번 비상총회에는 현장회의 참석 88명, 출석 위임 38명으로 총 126명이 출석하여 정족수를 통과했다. 교협 집행부는 “이번 비상총회의 의결안건은 현장 참석인원 88명 중 찬성 80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결의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다”라고 설명했다.

### 강신일 총장은 교무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

총장의 임면권은 이사회의 권한이고, 학·처장 등의 보직의 임면권은 총장의 권한이라며 교협 집행부는 “처장단의 사퇴서는 총장이 사표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총장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협 집행부는 “교무처장은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이하 구개추)의 부위원장이자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평가 준비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며 “비상총회에서 사퇴서를 낸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총무처장, 입학홍보처장 모두 총장이 사표 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공백을 우려하여 구개추 부위원장인 이창원 교무처장만 처장직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이사회는 9월 22일(화) 개최 예정인 임시이사회에서 강신일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라.

오는 22일 임시이사회에서 강신일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교협 집행부는 “강신일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따라 대처방식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강신일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시 보직단을 구성할 것이다”며 또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과 보직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표를 제출했고, 교수들의 절대다수가 사표 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마당에, 이사회가 이를 반려한다면 상식과 구성원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 확립 등 현 사태에 대한 교수협의회 목표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하기 위한 비상기구이다. 비대위 구성은 교협 집행부에게 위임했다. 이는 교협 집행부 7명, 각 단과대 별 교수 2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 이사회는 현 사태에 대해 한성대 구성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포함한 대학의 발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공시하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교협 집행부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도 책임이 있으니 한성대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성대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의 책임자는 총장이지만, 학교법인 한성학원 재단의 학교를 모두 관할하는 것은 이사회이다. 그러므로 본고 재정으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며 “물론 이사회의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14일 교수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다. 비대위의 구성원은 교수협의회 집행부와 단과대 별 교수로 구성되었다. 비대위원은 ▲박준철(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이병은(영어영문학부) 비대위원, ▲고창수(한국어문학부) 비대위원, ▲홍용식(경영학부) 비대위원, ▲유병호(무역학과) 비대위원, ▲임재영(의류패션산업전공) 비대위원, ▲이상원(애니메이션 제품디자인 전공) 비대위원, ▲박명환(산경경영공학과) 비대위원, ▲정영모(정보통신학과) 비대위원, ▲문귀선(교협회장단) 비대위원, ▲윤경준(교협회장단) 비대위원, ▲전완식(교협회장단) 비대위원, ▲장재영(교협회장단) 비대위원, ▲노광현(교협회장단) 비대위원, ▲윤진아(교협회장단) 비대위원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교협 집행부는 “현 사태로 인한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의 정상화를 신속히 이루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사각의 링 위로 오르겠다”라고 다짐했다.



Film Festival

## 학술정보관영화제

# 킬리만자로

“학술정보관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학업과 취업준비, 알바에 지친 학우 여러분!  
잠시 쉴 곳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킬리만자로의  
표범같은 그대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장 소** | 연속간행물실[5F]의 그룹스터디실

**대 상** | 학술정보관 이용자 누구나

**참가비**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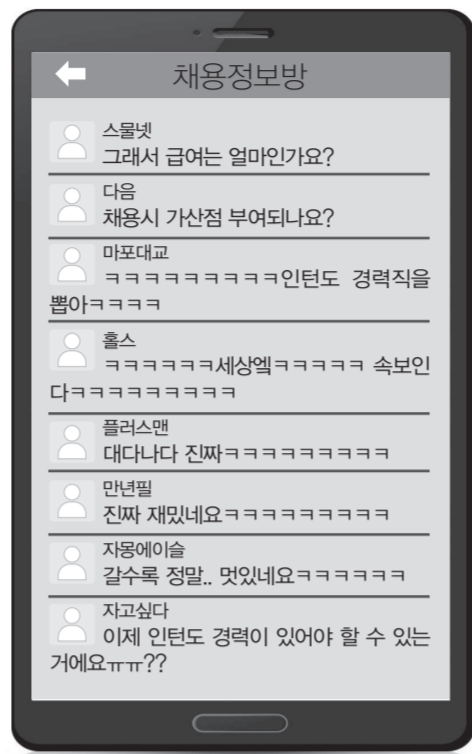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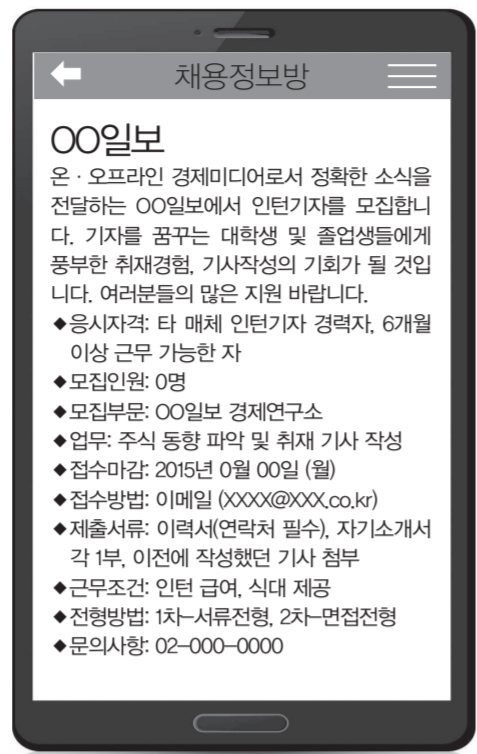
상영일	영화제목	감독
9/17	음식남녀	이안
9/24	터미널 [ 영화동아리 '다솜' 추천 ]	스티븐 스피버그
10/1	말할 수 없는 비밀	주걸륜
10/8	어버웃 타임	리처드 커티스
10/15	안녕, 헤이즐	조쉬 분

※ 매월 마지막 주는 영화동아리 '다솜'의 추천작과 함께합니다.  
※ 팝콘 및 음료를 제공합니다.  
※ 사정에 따라 상영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루와드루와 #이거안오면나가라는데 #보여는드림게

# '인턴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인턴의 정의와 법적 보호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대학생 A씨는 오늘도 인턴을 알아보고 있다. 어느 샌가 취업을 위한 필수 스펙이 된 인턴. 그런데 인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정규직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네 토익 850점 이상, 영어 회화 능통자 등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무리한 스펙을 요구하는데도 경쟁률은 늘 100:1을 넘는다. 몇 시간 동안 인턴 모집 공고를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지원할 곳을 찾은 A씨는 응시자격을 보고 절망했다. 그 인턴에 지원하려면 동종업계에서 인턴을 했던 경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생 B씨는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던 정식 사원으로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채용형 인턴'을 하고 있다. B씨는 열정페이로 받으며 과도한 업무와 하드웨어를 해야 했지만, 취업을 위한 길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뎌왔다. 정식 채용을 앞둔 어느 날, B씨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6개월간의 피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뽑기 시작한 것이다. 인턴이 필수 스펙이 되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턴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업은 인턴 경력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해 원하던 대로 신입사원의 교육훈련비용과 연수 비용을 줄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업은 인턴 교육시간까지 줄이기 위해 그 스펙이나 인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턴 공고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턴과 관련된 법이 없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인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무급 인턴, 체험형 인턴, 채용형 인턴 등 '인턴'이라는 두 글자만 붙이고는 일화용처럼 청년들의 노동력만 이용하고 헤치고 있다.

무급 인턴은 기업에서 인턴 자격으로 실무를 하지만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무급 인턴은 일을 한 대가로 임금은 물론 수료증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열정 페이'도 아닌 '열정 봉사'를 요구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체험형 인턴은 취업준비생들이 공기업에 가서 실무를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체험형 인턴은 취업준비생에게 현장 실무 교육을 시키는 대신 청소와 복사 같은 하드웨어만 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채용형 인턴은 일정기간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방식의 제도이다. 기업은 인턴에게 정직원 일은 물론 야근까지 강요하다 사원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인턴을 해고한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인턴을 뽑아 그들의 일을 대신하게 한다.

독에 나서 불법적인 인턴 채용을 적발하고 있다. 최저 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급인턴이 적발대상이다. 이 경우 체불임금지급명령을 내려 정당한 임금을 인턴에게 지급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은 인턴을 '근로자가 아닌 실무 교육생'이라 주장하고, 인턴은 입사를 위해 기업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자다.

처음 인턴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미국은 이런 인턴 제도의 폐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은 6개의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턴제도의 폐단에 대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프로그램이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인턴의 업무가 정규직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닐 것', '실제 직장 시설을 다루는 내용 이더라도 직업학교에서 시행하는 내용과 유사할 것'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길 시에 기업은 인턴을 인턴이 아닌 노동자로 대우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인턴들이 스스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인턴제도는 1984년에 LG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했다. 인턴제도는 기업과 취업 준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였다. 당시 인턴제도는 '채용 방법'이 아니라 취업 준비자에게 미리 실무를 익히게 하는 일종의 '교육 방법'이었다. 인턴제도를 통해 기업은 취업 준비자를 미리 교육하며 사전 평가를 거칠 수 있었고, 취업 준비자는 일을 미리 배워 입사 전에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인턴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 건 IMF가 터지고 부터였다. IMF 이후, 기업들은 신입사원의 교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턴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실무에 능한 사람을 사원으로 뽑겠다'며 인턴

원원전락이었던 인턴제도가 이렇게 기업에 의해 악용되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인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

독에 나서 불법적인 인턴 채용을 적발하고 있다. 최저 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급인턴이 적발대상이다. 이 경우 체불임금지급명령을 내려 정당한 임금을 인턴에게 지급하게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인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은 인턴을 '근로자가 아닌 실무 교육생'이라 주장하고, 인턴은 입사를 위해 기업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자다.

처음 인턴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미국은 이런 인턴 제도의 폐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은 6개의 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턴제도의 폐단에 대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프로그램이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인턴의 업무가 정규직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닐 것', '실제 직장 시설을 다루는 내용 이더라도 직업학교에서 시행하는 내용과 유사할 것' 등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길 시에 기업은 인턴을 인턴이 아닌 노동자로 대우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인턴들이 스스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브라질의 경우에도 법으로 '인턴'이라는 지위를 새로 만들어 인턴을 보호하고 있다. 브라질의 '인턴'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제 3의 존재이다. 브라질 정부는 인턴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는 법률도 만들었다. 이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도 인턴만을 위한 최저임금제나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률로 제정해 인턴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악안방

### 동의받은 폭력은 처벌할 수 없다? '매값'을 건넸더라도 폭력은 유죄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베테랑>이 관객수 1천만 명을 훌쩍 넘는 흥행물풍을 일으켰다. <베테랑>은 안하무인 재벌 3세에 맞서는 형사의 활약을 담은 액션영화다. 좌충우돌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이 범죄를 저지른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 분)의 손목에 거يرو 수갑을 채우는 결말에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다.

이 영화에는 기업의 분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화물기사를 불러 격투를 방자하여 폭행하고 수표를 던지는 재벌의 '갑질'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

2010년 어느 재벌 2세 A씨의 야구방망이 구타 사건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다. A씨는 고용승계 문제로 일인시위를 하는 등 회사 쪽과 마찰을 빚은 50대 운수 기사 B씨를 직접 불렀다. A씨는 B씨를 알투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른바 '매값'으로 수표를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A씨도 할 말은 있었다. B씨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맞은 부분이 있으며, 일명 '파이팅머니'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즉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때린 사람은 아무런 죄가 안 될까. 그렇지 않다.

받는다. 아동에게는 성인과 같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형법 제24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폭행(또는 상해)이다. 그동안 판례로 볼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친구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개인끼리 격투(또는 주먹다짐)를 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유죄로 처벌됐다.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해를 했거나 동료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목적이 이용된 것이므로 범죄라고 판단했다. 즉 승낙을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말이다.

통상 태권도나 권투 등 격투기를 통해 상대방을 가격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격투를 방자하여 사적으로 폭력을 주고 받는 일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 십상이다. 이른바 '쌍방 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할 대표적인 사례는 의사의 치료 행위,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한 부상 정도다.

형법(2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행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승낙해야 하고 △법률에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 이를 법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형사상으로는 범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처벌할 수 있는 자가 승낙하는 대표적인 예는 물론 주인이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거나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한 경우 등이다. 이때는 절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승낙을 얻어도 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죄가 살인이다. 형법에는 승낙을 얻더라도 살인을 하면 1년~10년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낙태 역시 마찬가지다. 임신부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더라도 낙태는 처벌 대상이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하기로 승낙이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

받는다. 아동에게는 성인과 같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도 "형법 제24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폭행(또는 상해)이다. 그동안 판례로 볼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친구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개인끼리 격투(또는 주먹다짐)를 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유죄로 처벌됐다.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해를 했거나 동료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목적이 이용된 것이므로 범죄라고 판단했다. 즉 승낙을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말이다.

통상 태권도나 권투 등 격투기를 통해 상대방을 가격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격투를 방자하여 사적으로 폭력을 주고 받는 일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 십상이다. 이른바 '쌍방 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할 대표적인 사례는 의사의 치료 행위,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한 부상 정도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재산이나 명예, 신체 등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 그것도 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만일 한 대에 얼마씩 받기로 약속하고 폭력을 주고받았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들다. 방망이로 때려도 좋다고 승낙했다더라도 그 승낙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매값'이 한 대에 수십만 원이든 수백만 원이든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용국(법원공무원, 법률칼럼니스트)

# 인턴제도의 폐해를 막을 대안, IPP일학습병행제

올해 3월 31일 시작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하는 IPP일학습병행제(이하 IPP)는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름 그대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 사업은 학생들이 전공 교육과 연계된 산업현장에서 4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실무경험을 습득한다는 점에선 인턴과 비슷하다. 그러나 인턴의 단점을 보완할만한 차별화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IPP는 인턴제도의 폐해를 막을 대안으로 꼽힌다.

IPP를 통해 기업은 산업현장에서 일했던 학생을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종에 우수한 학생을 사원으로 기업에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기존 인턴제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학생을 교육하는 OJT와 OFFJT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다는 점에선 인턴제도보다 더 경제적이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일을 가르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홍보 효과를 본다.

개인이나 하는 인턴과 달리 IPP는 학교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IPP 지원부터 최종 취업까지 학교의 도움을 받는다. 학교는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담교수를 둔다. 전담교수들은 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을 한다. 또 학생들은 정부지원금 40만 원과 기업에서 주는 최저임금수당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아 매달 120만 원의 수당을 보장받는다.

학습과 관련하여 학교는 학생을 파견하는 기업과 상의하여 교육과정을 파견 기업의 NCS\*에 맞춰 개편한다. 학생은 학교가 개설한 NCS 기반의 취업 관련 과목을 수강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미리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이런 NCS 과목 학습을 최대 15학점 인정하고, 추가로 학점이 부족한 학생에게 계절학기를 무료로 개설해 학점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는 이런 장점을 높이 사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기업의 IPP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원 20인 이상의 기업만 참여할 수 있지만 올해 6월부터 관계부처전담기관 등의 추천

을 받은 5인 이상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법안을 마련해 IPP를 수요한 학생에게 NCS 국가자격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학생은 이 자격증 하나로 실무능력을 기업에 입증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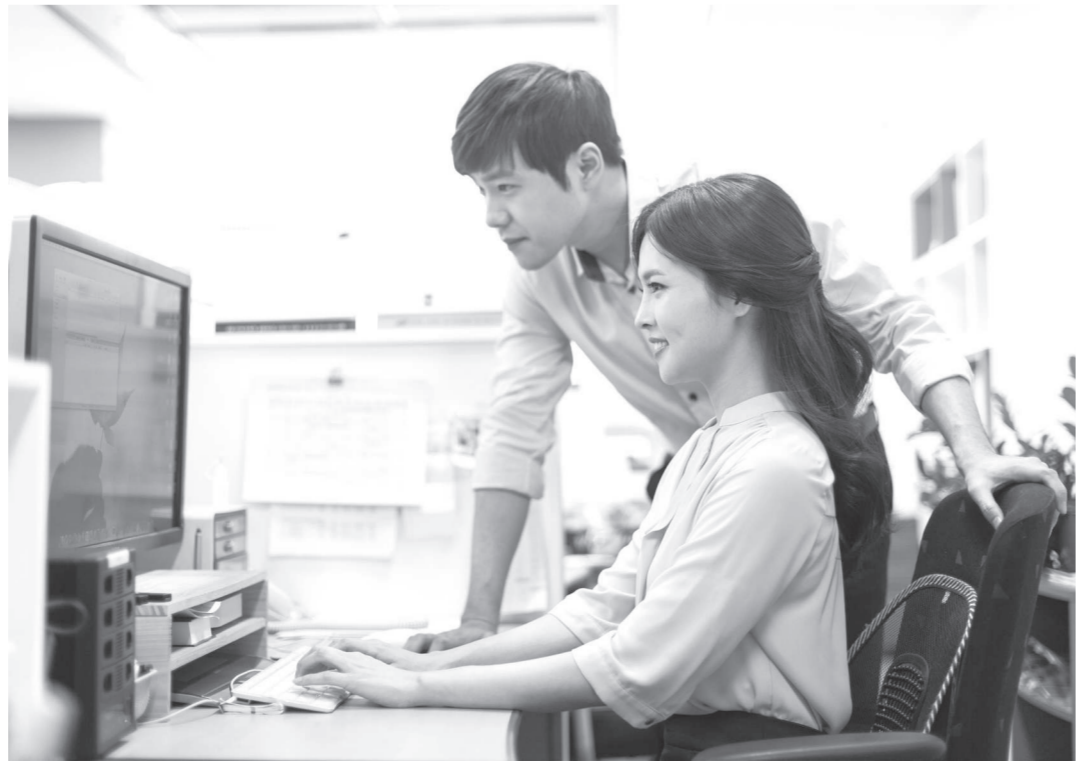
본교는 올해 4월에 IPP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매년 1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현대건설을 포함한 73개의 기업에 공과대학 6개, 사회과학대학 5개 학과의 학생 153명을 파견하고 있다. 본교는 학생들이 기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업에 보내기 전 사전교육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직장에질과 안전교육을 시킨다. 또 학생들마다 전담교수뿐만 아니라 실무형교수도 두어 한 달에 한 번 학생이 있는 기업을 방문해 학생들의 실무일지를 확인하고 학생과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다.

IPP에 참여하고 있는 김기욱(정보시스템4) 학생

은 "인턴은 뽑히기도 어려워서 업무를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IPP를 통해 학점도 채우고 현장실습도 하고 돈도 벌고 있어 만족스럽다"며 "열정과 끈기가 있는 학생들에게 IPP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세홍 IPP일학습병행제 사업단장은 "학생들이 IPP를 통해 실무능력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줄임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2015-2 학습역량강화 학습법 워크숍

**1차 워크숍**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비법 - 노트필기 및 리포트 작성

- 강사 : 장한별(Warm Speech 대표)
- 장소 : 미래관 ELC
- 시간 : 2015. 09. 24(목) 오후 4:00 ~ 6:00

**2차 워크숍**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관리 전략

- 강사 : 윤선현(베리타스 정리컨설팅 대표, '하루 15분 정리의 힘' 저자)
- 장소 : 미래관 ELC
- 시간 : 2015. 10. 01(목) 오후 4:00 ~ 6: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교내홈페이지 - 공지사항]  
 - 참여시 한성대유포인트 지급  
 - 문의 : 교육역량개발센터 02)760 - 4458

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



교단에서

고창수 교수  
(한국어문학부)

이번 대학평가 결과는 새삼 우리가 침몰하는 세월호의 승객임을 자각하게 하였다. 더구나 지난번 재정지원대학 결과와는 달리 만천하에 우리 한성대의 현실을 광고한 꼴이 되었으니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더 크고 안전한 새로운 한성호로 이주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일이다. 이러한 대안은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책임 있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진정한 세월호 사건의 해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는 것처럼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진상규명과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관련자들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다. 총장은 이미 지난 교수회의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총장을 사퇴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한 책임 의식을 엿볼 수 없는

# 세월호와 우리

것은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총장 및 관련 보직자들의 사퇴 수리 여부는 22일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꼭 총장의 사퇴가 수리될 보장이 없다는 묘한 뉘앙스가 교협 비상총회에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총장이 말 그대로 '응분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단지 현재의 위치 혹은 입장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장은 현재의 보직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이사회에서 '응분의 책임'이 아닌 진정한 책임을 질 것을 구성된 모두에게 투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비상교협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핵심이다. 마땅히 총장은 현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구성원 앞에 토로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누가 한성대의 앞날을 책임지게 된다하더라도 학교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역사의

발전은 빠이픈 자기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평범한 인문적 사유를 우리 모두가 통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제 다음 평가까지 채 1년도 안 되는 시간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이사회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구성원들이 빠른 시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협과 협력하여 비상 보직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앞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의 운영 주체로서 책임 있게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법인의 마땅한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 모두는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시각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지나친 패배주의와 개인주의는 우리를 점점 더 어두운 터널로 이끌 뿐이다.

## · 사 설 ·

### 교양영어 시수 축소에 관하여

학교가 최근 잠정 발표한 교과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4학년 8시간이던 교양영어 수업시간이 6학점 6시간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점 수는 오르지만 실제 수업시간 수는 총 25%에 달하는 2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수업시수를 줄여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는 학교의 경제적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학교의 영어교육 시간 축소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여 옳은 선택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막상 영어교육시간이 준다고 생각하니,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첫 문턱으로 반드시 넘어야 하는 토익시험이 마음에 걸린다. 물론 교양영어 수업과 토익점수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라고 하겠지만 언어라는 것이 결국 습관이다 보니 물리적인 접근하는 시간이 곧 실력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또한 요즘 취업의 현장에서는 영어면접과 같은 외국어 소통 능력의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되었다. 또한 영어교육은 학문의 기초로서 인문학도뿐 아니라 공대, 상경계열 학생들의 원서 독해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 교육이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굳이 '국제화', '세계화'라는 거창한 명제를 가져다 붙이지 않더라도, 영어교육 시수 축소는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초소양을 갖추고, 원서를 읽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학교 교양영어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대학과 형편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산업기술대학은 12시간, ACE 사업을 수주한 가천대는 무려 24시간을 영어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즉 외국어 소통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은 대학교육의 대세가 되었고,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그러한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양영어 교육 시수를 무조건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축소에는 학교 측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따라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을 포함한 교육수요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사비를 들여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 쇠사슬, 반복되는 뉴스와 원고지

## 한성대신문 504호 <삼학송>에 대한 답장



기자수첩

임태미 기자  
(시각영상 2)

지난 학기 신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난 1학기 종강호. 편집국장직의 사설 <삼학송>은 선배가 되었지만 전 마지막호 후배들에게 남기는 글이었습니디. 그 삼학송에 이제야 답합니다.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기자들이 한성대신문 8면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편집국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벗고 후련해지셨나요? 2학기 개강, 채 한 달이 안 되었지만 신문사는 바람 잘 날 없습니디. 작년부터 계속되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결국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어느 때처럼 '조용'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용돌이 속입니다. 기자들은 실 틀이 없었습니다. D+등급을 받게 된 학교와의 간담회를 취재하고, 정확한 자료를 받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한성대신문 492호의 백지 1면 답은 신문사에서 다신 유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506호, 발행이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신문사에는 당연히 원칙이 존재합니다. 기자들은 발행일에 맞춰 기사를 쓰느라 몇 날 며칠을 신문사에서 지새웁니다. 기자가 3명뿐이라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으려 애써 써서 떠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논란 속의 본교, 기자로서 지나칠 수 없는 기사 거리를, 쉽게 가지 말자. 정도(正途)를 걷자. 선배 기자들에게 배웠던 기자 정신을 아무리 힘들어도 이어가자고, 오히려 서로를 채찍질한 기자들입니다.

저희의 손과 발을 옥죄는 쇠사슬은 여전히 있지만, 이를 떨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원고지도 빠르게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의 기사가 반복되고 무의미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기사가 독자에게 와 닿기를, 함께 고민하고 지켜봐주세요.

때문이라고요. 저희도 기자이지만 한 명의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의 마음 외에 취재를 하려는 이유가 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신문,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논란 속의 본교, 기자로서 지나칠 수 없는 기사 거리를, 쉽게 가지 말자. 정도(正途)를 걷자. 선배 기자들에게 배웠던 기자 정신을 아무리 힘들어도 이어가자고, 오히려 서로를 채찍질한 기자들입니다.

저희의 손과 발을 옥죄는 쇠사슬은 여전히 있지만, 이를 떨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원고지도 빠르게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의 기사가 반복되고 무의미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기사가 독자에게 와 닿기를, 함께 고민하고 지켜봐주세요.

## · 삼 학 송 ·

###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야할 길

힘들었다. 지난 3주 간 한성대 신문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신문을 제작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D+등급이라는 결과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자로서 지켜봐 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 한성대신문의 현직 기자 수가 3명이기 때문일까? 내가 편집국장직에 있는 한성대신문이 본교의 현 상황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유일한 학내 언론사'이기 때문일까?

이상하다. 총장 간담회에서조차 이사장 간담회에서도, 교수협의회 결의문에서도 모두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본교에서 한성대신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이는 비단 오늘날의 일은 아니었다. 지난 해 한성대신문사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본교가 8.6% 정원 감축을 통한 지정유예를 받은 사실에 대한 기사를 썼다. 하지만 이는 학교의 대내외적 이미지와 학내 논란의 여지 등의 이유로 백지 발행되었다. 그 당시 정기자였던 나는 독

자의 알권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학기에는 한성대신문 499호에 한성복지장학금과 관련된 기사가 실릴 예정이었다. 한성복지장학금 예산이 부족하여 책정방식이 바뀌었고, 그 결과 지금 금액도 바뀌게 되어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이였다. 이는 조판 당시 갑작스럽게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나는 해당 기사를 삭제해야 했다. 부장기로서 삭제된 내 기사를 보면서 편집권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학기에 들어서며 본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는 커다란 산을 만났고, 취재에 있어 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욱 어려웠다.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은 각기 달랐고, 취재 또한 난항이었다. 신문 발행일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편집국장으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한성대신문사 제39대 편집국장으로서 '불편부당 정론직필(不偏不黨 正論直筆)'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낙산에 올라

이광호  
(한국어문 3)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은 허둥지둥 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재미있어서 거짓말을 하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땐 아무도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 양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우리학교에도 양치기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거짓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벌써 몇 번째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 하는 소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미 양도 잃었고 평가점수도 잃었거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개그포로가 따로 없습니다. 첫 코너의 주인공은 D+를 받고 나서야 놀라온 일이 일어난 중앙 성명을 내는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중앙위원회입니다. 진짜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뒤집을 수 없는 결과가

발표되니 우후죽순 등장합니다. 통폐합 때 힘을 모아 오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메인 무대에는 역시 총장님이 올랐습니다. 9월 3일 총장님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웬걸. 며칠 후 돌연 사퇴를 표명하십니다. 그럼 총장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이제 누가 지켜야 하나요.

안타깝습니다. 학교가 하는 약속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학생들은 힘이 없으니 식연하지 않아 하면 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총장님을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가시던 길 마치기가길 바랍니다. 책임 질 의지가 없는 사람을 책임지라고 남겨 봐야 결국 받아내는 건

또 다른 공허한 약속과 무의미한 사과뿐일 겁니다. 이 약속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학생 대표, 교수 대표가 모두 공론의 장을 만들고 있는 지금 학생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정말 위기라 생각해서 성명을 발표했다면 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약속도, 진심이 없는 사과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딱 하나뿐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총장 및 이사회를 비롯한 일부 집단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겠다, 약속하겠다, 잘 하겠다는 양치기 소년의 '말'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이번이 누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 본교에 배달된 성적표, D+



독자칼럼

현정은  
(무역 3)

지난 8월 31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한 단어가 필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바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였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한 해 총 66곳 대학(4년제, 2년제)의 재정지원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 66곳의 대학 중, 본교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필자뿐만이 아니라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번 발표에 관심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본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피하기 위해 A학점 비율 감축, 학과 통폐합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측은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일이다', '우리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라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학교의 노력은 이날 교육부의 입을 통해 발표했다. 그 결과 본교는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D그룹에 속했다. 그래도 본교는 D그룹 중 80점 이상을 받아 재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제한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신·편입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유형 II를 제한받게 됐다.

어떤 학생이 SNS에 남긴 댓글이 뇌리를 스친다. '술 먹고 학교 안가면 나오는 게 D+인데', 필자는 학교에 대한 실망스러운 학생의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다.

학교는 평가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 메인 및 '낙산의 메아리'에 게재했다. 게시된 글에는 상위권 점수를 획득한 부분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진정 궁금해 하는 저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확보율'이라는

항목 외에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회피하는 학교의 태도에 교수협의회는 총장과 전체 보직자 사퇴를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재학생 및 졸업생들 역시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저평가를 받은 항목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학교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계획만을 내열할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이에 강신일 총장은 지난 7일 열린 전체 교수회의 및 직원회의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학교는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 낙산만평

임태미(시각영상 2)



# 아주 사적인 시간 '텐아시아' 가요팀 박수정 기사를 만나다

'아주 사적인 시간'은 인터뷰 대상 선정부터 컨택까지 기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 열광하는 또는 열광했던 연예인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 알고 싶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꾸는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연예인을 가까이 지켜보며 그들의 소식을 대중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아주 사적인 시간'에서는 발 빠르게 정확한 연애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3년차 연예부 기자인 박수정 기사를 만났다.

**현재 연애 매체인 '텐아시아'에 근무하시고 계신데 연예부 기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창시절에 신화를 좋아해 연예계 문화를 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엔 전공이 국사학이라 예능과 국사를 접목시켜 역사에 대해 알리고 싶어 예능 PD를 꿈꿨어요. PD가 되기 전 작문능력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텐아시아'에 수습공고가 됐어요. 그 당시에 '텐아시아'에서 방송리뷰와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기사를 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궁금증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돼 재미있게 느껴요.



▲ '텐아시아' 박수정 기자의 모습

**대부분의 기자들이 휴일 없이 일하지만 연예부 기자는 특이나 더 그런 것 같아요. 박수정 기자님이 생각하는 연예부 기자들의 고충은 무엇인가요?**

취미가 일이 되면 진짜 나의 취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자 시간이 되면 즐기던 원래 제 취미가 일이 되니 스트레스 풀 곳이 적어요. 저는 가요팀에서 근무하니 외국영화를 보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또 주말에 콘서트 취재를 간다고 하면 주위에서는 마냥 좋다고만 생각해요. 하지만 콘서트 끝난 후, 기사작성도 해야 하고 주말을 투자하는 건데 그런 시선이 때론 괴로워요. 그리고 기자는 '박봉'이예요! 기자가 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연예부 기자들의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보람을 느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연예부 기자로 종사하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적은 언제 인가요?**

사람들이 제 글을 많이 읽을 때요. 제 글이 커뮤니티에 자주 공유될 때 보람을 느껴요. 또 연예인이 자신에 대해 쓴 기사를 읽고 직접 고맙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럴 때는 그 연예인에 대한 애정도 저절로 생겨나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쓴 기사에 '기사를 읽고 이 가수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느꼈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이 때 글 쓰는 기쁨을 느꼈어요. 보람은 아니지만 가수들의 신곡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점도 좋아요.

**연예부(가요팀) 기자를 하시면서 많은 가수들을 인터뷰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수나 인터뷰는 무엇인가요?**

여러 인터뷰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2013년 말에 한 힙합 3인조 그룹 리듬파워와의 인터뷰예요. 같이 랩을 했어요. 당시 한창 패기 넘치는 막내 시절이어서 새로운 도전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랩 가사를 써서 리듬파워에게 고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리듬파워가 제가 쓴 가사를 고쳐주기도 하고 비트에 맞춰 함께 랩을 했어요. '리듬파워의 힙합교실' '홍홍홍 나도 랩을 한다'라는 인터뷰 기사예요. 또 첫 인터뷰가 소년공화국과 한 인터뷰인데 노래방에서 했어요. 그것도 새로운 시도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가수는 에이핑크예요. 그 전까지는 에이핑크는 '청순돌, <응답하라 1997>로 유명해지고 저와 동향(同鄉)은 정인지가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인터뷰가 아침이었어요. 인터뷰 끝난 후, 선배들이 "들어갈 땐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인터뷰하고 난 뒤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 인터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제3자가 그렇게 이야기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커뮤니티에서 에이핑크, 마마무 등 여자아이돌 팬으로 유명하세요. 남자아이돌보다 여자아이돌에 눈길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여자아이돌이 남자아이돌보다 더 편해요. 여자아이돌하면 옆집 동생, 친구, 언니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아이돌 역시 여기저라서 그런지 편하게 느끼고, 서로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아이돌은 학창시절 신화를 좋아해 그 이상으로 애정을 준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학창시절 기억은 오래 남잖아요. 사실 여자, 남자 아이돌 할 것 없이 모두 좋아하는데 여자가 여자아이돌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지 않나 싶어요.

**'박수정의 덕후성', '텐카메라맨', '음방타입라인' 등 코너를 만드셨는데. 저는 특히 '텐카메라맨'의 센스 넘치는 별점을 좋아하는데, 코너를 만들 때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마마무, 여자친구요. 그리고 남자아

애정 있는 대상을 어떻게 빛내줄까 생각하다 만들어지는 게 코너 같아요. '텐카메라맨' 같은 경우는 에이핑크 무대에서 생각해 냈어요. 당시 에이핑크가 'NO NO NO'로 활동 중일 때 모던 음악방송에서 대령이 옆으로 펼쳐지는 포인트 안무를 제대로 안 잡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워 기사를 쓰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엔 방송사를 두고 카메라 워크에 대한 순위를 매겼죠. '텐카메라맨'이 나오고 나서 다른 매체에서 카메라워크에 대해 다루고, 방송사에서도 포인트 안무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 이후엔 순위 매기기가 어려워 방송사별 특징과 가수들의 매력포인트를 짚아 별점을 주고 있어요. 기사를 쓸 때 가수의 팬 입장이 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애정을 갖고 있는 아이돌들이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기사의 뮤즈'들이네요.

**최근 종영한 MBC에브리원 '비밀병기' 그너에서 덕후 편집단으로 출연하셨는데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멤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뷰의 솔빈이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임해요. 제가 편집단으로 처음 멤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첫 시간간담회에서 무대를 봤는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노래부터 안무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더 괜찮다고 생각했고, 인터뷰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마무는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계속 잘될 것 같아요. 제 기사에도 썼는데 마마무는 실력이 먼저 알려지고 팬들이 아이돌 매력으로 임터(팬이 되는 것) 해 마마무 매력에서 빠져나가는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후배가 말해줬는데 자기 동생이 마마무를 보고 그 날 밤을 새서 영상을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임터이잖아요. 아이돌은 꾸밈없고 자기만의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면 정이 안 가더라고요.

**요즘 가장 눈길가는 아이들이 어떤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마무, 여자친구요. 그리고 남자아



▲ '텐아시아' 박수정 기자의 모습

이들 중에서는 세븐틴이요. 세븐틴은 처음에 멤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시간간담회에서 무대를 봤는데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노래부터 안무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더 괜찮다고 생각했고, 인터뷰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마무는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계속 잘될 것 같아요. 제 기사에도 썼는데 마마무는 실력이 먼저 알려지고 팬들이 아이돌 매력으로 임터(팬이 되는 것) 해 마마무 매력에서 빠져나가는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후배가 말해줬는데 자기 동생이 마마무를 보고 그 날 밤을 새서 영상을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임터이잖아요. 아이돌은 꾸밈없고 자기만의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면 정이 안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예부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환상을 갖지 마세요. 가끔씩 메일을 통해 연예부 기자가 되는 법을 묻

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인턴을 지원해 보라고 조언해요. 사람들이 '덕업일체', '성공한 팬'이라고 말하는데 연예부 기자는 한 가지 즐거움을 위해 아홉 개의 고생을 해요. 인턴을 경험해보고 환상을 꺾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즐길 수 있다면 재밌게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 '역사를 재미있게 알리자'는 목표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아이돌 편견을 깨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정 기자 hje6757@hansung.ac.kr



▲ 걸그룹 에이핑크의 모습(출처: 에이핑크 페이스북)

▲ 걸그룹 마마무의 모습(출처:마마무 페이스북)

## 한성미식회

### '집밥'이 생각날 때



① 'ㅎㅅ분식' 오삼찌개와 계란찜. 가격 4,000원 대



② 'ㄷㅎ분식' 계란찜과 제육볶음. 가격 4,000원 대



③ 'ㅋㅁ분식' 제육볶음과 불고기, 계란찜. 가격 4,000원 대

**'ㅎㅅ분식'**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게 윤기가 찰찰 흐르는 쌀밥에 얼큰한 찜개가 최고! 그래서 오늘도 학교 앞 'ㅎㅅ분식'의 오삼 찜개를 주문한다. 보글보글 끓는 맛있는 소리와 함께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김. 보기만 해도 얼큰해 입가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새빨간 국물과 코를 찌르는 매콤한 냄새. 그 유혹을 참지 못해 순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으면 걸쭉기만 달리 달달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또 오징어와 삼겹살이 들어 있어 바다와 육지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집밥이 먹고 싶을 때 가기 좋은 곳" 등의 평가.

**'ㄷㅎ분식'**  
어린 시절, 아침 식사로 잘 내은 따끈따끈한 계란찜을 후후 불어먹다 허를 데인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ㄷㅎ분식'의 계란찜을 추천한다. 노란 계란 위에 우수수 뿌려진 깨는 보기만 해도 고소하다. 순가락으로 계란찜을 뜨면 노란 계란이 탱글탱글 순가락 위에서 춤을 춘다. 뜨거운 김 속에 야들야들 어린 숙살을 감춘 계란. 입가로 가져가 후후 불어 입에 넣으면... '앗 뜨거워!' 비명과 함께 허겁지겁 물을 들이켜게 된다. 혀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얼얼하지만, 눈은 계란찜 위의 퍼져들 거늘거 휘어져 웃고 있다. "계란찜과 먹는 밥이 누룽지처럼 구수했다", "사실 김치볶음밥이 더 맛있음" 등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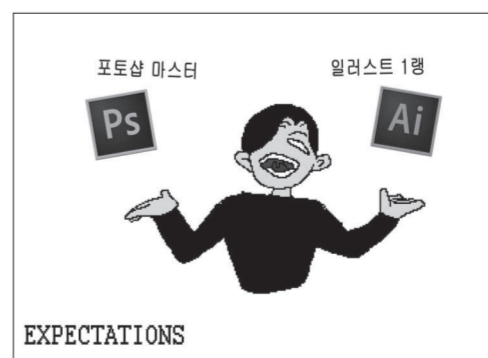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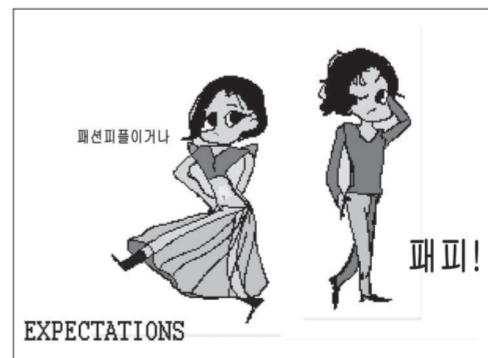
**'ㅋㅁ분식'**  
매일 우리가 늘 하는 즐거운 고민 '오늘은 뭐 먹지?' 그 고민에 대한 답으로 'ㅋㅁ분식'의 제육볶음을 제시한다. 뚝배기의 지글거리는 소리는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하기에 충분하다. 씹을 때마다 달콤한 양념이 배어나는 돼지고기. 고기만 먹어 입안이 텁텁할 땐 상추와 양파를 곁들인다. 제육볶음을 다 먹고 남은 뚝배기엔 밥을 넣고 비벼 마지막 남은 양념까지 싹싹 긁어먹는다. 이렇게 빨갛게 볶은 돼지고기 한 뚝배기와 밥 한 공기.는 게 손꼽을 수 있다. "단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 일듯",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을 듯" 등의 평가.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과대망상

-패션디자이너과

글, 그림  
임태미(시각영상2)



# 윙—윙— 무인 비행체, 드론이 뜬다!

공원에서 미니 무선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어른들. 요즘 어른의 장난감은 한층 진화했다. 이제는 미니 무선 자동차를 넘어 개인용 취미생활로 '드론'이 대세가 된 것! 유튜브에서 본 한 영상, 컨트롤러로 비행 물체를 하늘 위로 띄운다. 곧 균형을 잡는 이 비행체는 내장된 카메라로 탁 트인 풍경을 담아낸다. 이 영상을 보고 '드론을 검색한 기자는 놀라고 말았다. 값비싼 발명품인 줄 알았는데 웬걸? 겨우 5만 원대로 드론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드론, 가지고 놀기에 위험하지는 않을까? 단순한 취미용 장난감일까? 궁금한 것이 많은 '드론'에 대해 기자가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위) 우리나라 드론 제작업체 엑스드론의 무인 정찰기 XD-X8  
(아래) 드론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DJ사의 팬텀 3

드론(Drone)은 수컷 벌이 왕봉대의 소리를 따른 이름으로,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소형 무인 비행체를 지칭한다.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라고도 하는 이 드론은 과거에는 주로 적군을 정확히 겨냥해 공격하거나 테러 조직에 은밀히 접근해 타격을 주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에 위험한 지역에서 군사 임무를 해결하거나 무기와 연료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드론은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되어 민간인 피해를

주는 등 그 잔인한 용도에 인권단체와 여론에게 부정적인 기술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최근 드론의 쓰임새가 달라지고 있다. 경찰의 도난 차량 추적이나 마약수사, 재난의 방재, 밀렵꾼 수색과 같이 범죄를 막는가 하면 미디어에서는 항공 촬영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민간용(civilian) 드론 시장 규모가 5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업부터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드론은 크게 고정익 드론과 회전익 드론으로 나뉜다. 회전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드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기와 같은 형태로, 주로 군사용 목적에 쓰인다. 회전익 드론은 날개가 헬리콥터처럼 회전하는 비행체이다. 고정익 드론과 달리 활주로 필요하지 않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기동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이 회전익 드론이 바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상업용 드론이다. 현대과학의 발전과 함께 GPS나 카메라 등 부속장치를 부착해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소형 회전익 드론은 리모콘 조종 완구로 인기가 많다.

또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셀카를 찍는 이른바 '셀피 드론' 역시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용 드론은 몇 기업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드론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 e 소핑몰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이어'라는 드론 배달 시스템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8일 아마존은 이를 '무인 항공기 배송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프라이어에는 프로펠러가 8개인 '옥토크터' 드론으로 최대 23 kg 물품을 탑재하여 배송할 수 있다. 물류 창고에서 30분 이내에 주문한 물품을 소비자 집 앞마당까지 배달받을 수 있다. 이어 구글 역시 드론 기반의 배송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는 "택배용 드론은 제한된 공간에서 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C대 한통운과 엑스드론에서 공동으로 시범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론을 띄우려면 비행체의 안정성과 데이터비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다.

드론 위험하지는 않을까? 머리 위

에 날아다니는 작은 비행체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드론은 현재 항공법 이슈는 물론 사생활침해, 사고 위험성, 불법적인 활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디가에서 날아와 사나운 프로펠러에 베이는 것은 아닌지, 사생활을 몰래 촬영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진정회 대표는 "모든 산업이 순기능적인 부분만 강조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불법적인 범죄 등 역기능적인 활용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고 기존의 사회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이라 설명했다.

크기는 작지만 드론 역시 항공법상 조종장비행장치로 분류되어 항공법의 규제를 받는다(항공법 제2조 제28호, 제23조). 사업용이 아닌 12kg 이하의 드론을 제외한 드론은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이름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해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한다(항공법 제23조 제1항).

군사용 목적의 위협적인 드론을 막기 위해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도 설정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중앙지역에서는 드론을 날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행제한구역은 서울 외곽과 한강이남 지역으로, 이곳에서 높이 150m 이상 날리는 것 또한 금지한다. 안전을 위한 규제도 있다. 우선 조종자의 시야에서 드론이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멀리 날리는 것도 금지이다. 드론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안개, 황사가 심한 날에도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다. 드론을 통해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비행을 하는 것 역시 안된다. 앞서 말한 셀카 드론에 혹했다면 이 또한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정부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드론의 안정성 문제에 진정회 대표는 "안전문제는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보다 안정적인 기술이 더 요구되는 산업"이라 강조했다.

하늘 위로 피자 배달 박스가 오가고, 하늘에 떠있는 카메라로 단체 사진을 찍는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든 드론. 앞으로 드론의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해질지 기대된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 출처: 엑스드론



## 서원재교수의 락커룸

### 대중은 '문명'과의 단절을 꿈꾼다

가을야구 티켓 경쟁으로 KBO 리그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메르스 여파에도 5년 연속 600만 관중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여자 연예인 야구단의 창단 소식도 들리고,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도 활발하다.

문명은 정신적, 지적, 물질적, 기술적 발전에 필요한 규범과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왔다. 산업화를 통해 사회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조화하는 것 또한 현대 문명의 주된 과제였다. 문명사회의 행동양식인 제도와 규범은 인간에게 통제와 착취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사회적 행위자이기 전에 독립적, 자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제도가 정교해질수록 독립적, 자유적 인간의 일탈 욕구는 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문명의 발

전과 대중의 긴장은 불가피하다. 현대 문명은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몰해왔다.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문명의 규범적 강요로 쌓인 대중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장(場)이 필요했던 것. 이를 위해 문명사회는 인간의 유희적 본성에 주목해 왔다. 자유적 인간은 놀이를 통해 유희적 해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프로스포츠는 문명과 자유적 인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프로스포츠는 최적의 유희적 해방감, 즉 리미널리티를 제공한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축제나 카니발 같은 의례들에서 질서와 무질서,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며 전도되는 현상을 '리미널리티(liminality·역치성)'라고 표현했다. 리미널리티는 현실에서 벗어난 '흥겨움'과 '축제의 상황'이다. 이러한 흥겨움은 때론 '난장판'처럼 보

이기도 한다. 대중은 통제와 불평등과 같은 인간의 독립적, 자유적 본성에 배치되는 문명사회의 결합과 이에 대한 불만을 놀이를 통해 해소하려 한다. 이때 프로스포츠는 대중의 놀이적 일탈과 해방을 위한 장(場)이 된다. 스포츠를 통한 일상의 해체는 대중에게 사회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적 행위자로서 인간 본연의 감성을 만끽하게 한다. 그리고 문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수단의 힘을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포츠는 문명사회의 유지와 운용에 보탬이 된다.

대중이 몰입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월드컵 거리응원은 리미널리티 현상을 잘 보여준다. 프로야구의 코리아 시리즈, 2002 월드컵 4강전, 올림픽 경기 현장에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감동에 하나 되는 관중의 모습을 보았다. 이곳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계층이 존재하지 않

는다. 피부 색깔과 국경도 허물어진다. 오직 인류의 보편적인 감성만이 남는다. 이처럼 '흥'의 순간에 대중은 문명의 경제적, 생물학적 지위와 헤게모니가 해체되는 현상을 경험한다. 문명사회의 종적인 서열이 횡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문명과 단절된 리미널리티 공간에서 대중은 독립적, 자유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되찾는다.

문명화로 인한 긴장과 피로감이 높은 사회일수록 리미널리티를 수반한 프로스포츠가 발전한다. 제3세계 국가보다 미국을 위시한 서유럽의 문명국들을 중심으로 프로 리그가 발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중은 '문명'과의 단절을 꿈꾸며 산다.

서원재

을지대 스포츠아카데미학과 교수



## 배신 앞둔 사람,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이 배신을 당했을 때 하는 그 뻔한 대사.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배신을 당해봤을 터. 하지만 그 배신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 곧 배신할 사람을 알아채는 방법이 있다. 배신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곧 배신할 것이라는 '티'를 내기 때문이다.

미국의 코넬, 메릴랜드, 콜로라도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게임 실험을 통해 배신자의 특징을 찾아냈다. 연구팀은 '디폴트머시라는 영토전쟁 게임 참가자들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배신이 일어난 플레이어 간의 대화와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의 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배신을 앞둔 플레이어는 과도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들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지도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는 독일 참가자가 제시한 전략에 대해 "완벽한 전략이네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고마워요 친구"라고 칭찬한 직후 바로 배신했다. '배신자'들은 어떤 타이밍에 배신



을 할까? 이에 대해 연구팀은 "주로 피해자가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면 피해자들이 배신을 했다"고 말한다. '배신자'들은 피해자가 미래 계획을 털어놓을 때 듣기만 하고 본인의 미래 계획은 말하지 않는 특징도 보였다. 연구팀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

해 이 방법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정확도는 57%로 나타났다.

만약 상대방이 지나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을 쓴다면, 의심해볼만하다. 그는 지금 배신을 준비 중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 마법소녀로 변신할거야! 삐리카 삐리랄라 포포리나 페페루트!

문 크리스탈 매직 파워 메이크업! 이 주문을 아는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감이 왔을 것이다. <달의 요정 세일러문>의 변신 주문이다. 매화 지갑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변신하는데, 여지없이 그 장면만 기다리던 어릴 시절을 추억한다. 그런데, 어릴 때 보던 마법소녀물(마법소녀가 등장하는 만화의 장르)은 지금 봐도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어디 세일러문 뿐이라. 꼬마 마법사 레미, 천사소녀 네티, 웨딩피치, 요술공주 밍키... 기자가 한번 덕후의 마음으로 마법소녀의 역사를 파헤쳤다.

### 소녀가 주인공이 된 마법소녀들의 시초 (요술공주 세리)

최초의 마법소녀물은 어떤 작품이었을까. 모르는 작품이거나 세일러문은 아닐까? 그런데 의외로 처음 나온 마법소녀 애니메이션은 <요술공주 세리(원제: 마법사 세리)>다.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 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 왔어요~'라는 노래가사가 친근하게 입에서 흘러나온다. 세리가 등장한 6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들은 소년들이었다. TV 애니메이션이 시작된 60년대의 일본에서 소녀에 비해 소년들의 구매력이 더욱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60~70년대 TV 애니메이션은 소년들을 위한 작품들이 제작·방영됐다. 그 틈새를 훑고 <요술공주 세리>가 방영하면서 '마법소녀'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개척했다. 그 당시 애니메이션의 소녀(여성)가 소년(남성)을 돕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던 것에 비해 파격적인 작품이었다. 마법소녀물에서 소녀들은 행동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요술공주 세리>는 마법나라의 왕녀인 세리가 인간세계로 놀러온 이야기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사건들을 마법을 사용해 해결해 나간다. 마법나라의 왕녀 세리는 마법을 부리며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소년 카부는 조건에만 머물렀다.

### 소녀들이 마법소녀로 변신하는 장면이 중요한 키포인트 (거울요정 라라), (요술공주 밍키)

마법소녀물의 핵심은 바로 주인공 '소녀'가 '특별한 힘'을 통해 '변신'을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변신 장면은 마법소녀물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된다. 이러한 변신 장면은 <요술공주 세리>를 제작해 히트를 친 제작사 도에이가 제작한 <거울요정 라라(원제: 비밀의 요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변신 장면은 마법소녀물



▲ 마법소녀물의 대표적인 작품 <달의 요정 세일러문(원제: 미소녀전사 세일러문)>.

의 전매특허로 작품마다 등장하는 요소가 되었다. 변신장면의 인기를 더욱 끌어낸 작품은 바로 <요술공주 밍키(원제: 프린세스 밍키모모)>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하고 귀여운 소녀 밍키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변신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밍키가 변신할 때 입고 있던 옷이 사라지고 '나신'을 실루엣으로 처리해 소녀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육체적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이 변신장면은 소녀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고, 소년들에게는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관능적 장치가 되었다. 제작사들은 이 변신장면을 반복해서 등장시켜 제작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 미소녀가 여럿이 등장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달의 요정 세일러문), (마법기사 레이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의 요정 세일러문(원제: 미소녀전사 세일러문)> 역시 변신장면이 작품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달의 요정 세일러문>의 변신장면은 지금까지도 변신장면의 최고로 꼽히면서 사랑받을 정도로 그 퀄리티가 남다르다. 변신 장면은 약 40초나 되는데, 이러한 변신을 주인공인 세리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의 미소녀들이 변신한다. 이 때 주인공인 세리와 내행성 5인조, 외행성 4인조를 합친 총 10명의 소녀들은 각각 세일러 전사로 변신을 도와주는 아이템

릿드(로드)와 같은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마법 아이템들은 팬시완구로 제작되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키덜트를 모으는 어른들에게까지 사랑받고 있다.

같은 90년대 작품인 <마법기사 레이어스>와 <달의 요정 세일러문>은 장르 간 크로스오버가 등장한 새로운 마법소녀물이었다. 기존의 소녀들이 마법의 힘을 가진 뒤 일상적인 일을 해결해나가는 것에 반해 이 두 작품은 미소녀 전사가 대거 등장하는 '전대물'로 적과 만나 '전투'를 하는 파격적인 설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판타지'와 마법소녀물이 결합해 이세계(異世界)를 모험하는 소녀들이 심지어 거대 로봇을 타는 복합적인 크로스오버를 보여주었다.

### 마법소녀 이제는 충격과 공포까지 선사해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2011년 1월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가 방영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마법소녀'가 탄생했다"고 입을 모았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는 그림체만 보면 마법소녀물 기존의 클리셰(판에 박은 듯한 문구 또는 진부한 표현)를 이어가는 듯하다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잔혹한 장면과 처절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돼 성인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평범한 중학생인 마도카가 외계생명체 큐베를 만나 마법소녀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줄 알고 본다면 그 충격적인 결말에 넋이 나갈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 이 애니는 환상적이지만 공포스럽고 괴기한, 비극적인 내용의 '다크판타지' 장르와 결합된 새로운 마법소녀물로 평가되었다. '꿈'과 '희망'을 주던 마법소녀가 이를 짓밟는 작품이었지만, 열렬한 팬층을 가지게 되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기자는 마법소녀의 변신장면을 모은 영상을 찾아볼 만큼 마법소녀가 사랑스럽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마법소녀물이지만, 그 클리셰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최근 등장한 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를 보면 앞으로 더 새로운 장르의 진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마법소녀물이 발전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변신장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에게 치열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참고 논문: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 연구: 마법소녀물을 중심으로', 박인하.



▲2011년 1월 방영 후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기를 끈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와 소녀가 어른으로 변신하는 내용의 <거울요정 라라(원제: 비밀의 요정)>.

## 그녀들이 아직도 소녀처럼 요술봉을 휘두르는 이유

### 1. 왜 아직도 마법소녀를 좋아하나

Q1: 변신하는 모습이 예쁘고... 너무 예쁘고...(반복) 들고 있는 무기들이 소유욕을 자극한다. 특히 <꼬마 마법사 레미>의 레미가 마법봉에 유희를 넣는거나, <웨딩피치> 릴리의 립스틱! 볼 때마다 가지고 싶고 실제 굿즈로 판매하고 있어서 구매할 것이 몇 개 있다.

Q2: 필살기를 쓰거나 변신하는 장면이 매력이다. 사실 내용은 흐름이 비슷하다. 변신 장면은 때면 봐도 좋다. 변신해서 예쁜 옷을 입고 요술봉을 들고 싸온다거나 그런 걸 어릴 때부터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요술봉을 휘두르며) 아직도 마법소녀가 되는 상상을 한다.

### 2.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뭔가요?

Q3: 당연히 <세일러문>이다. 세일러문의 매력? 우선 너무 예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작품이라 더욱 좋아졌다. 사랑과 우정사이 갈등이나 인간 간의 이념대립이 어른들도 재미있게 볼만한 요소이다. 좋아하는 캐릭터는 세일러 넵튠. 말이 필요 없다. 제일 예쁘다(단호).

Q4: <세일러문>도 좋지만 <꼬마 마법사 레미>가 최이다. 캐릭터를 귀엽고 시리즈별로 컨셉도 바뀌어서 보는 재미가 있다. <세일러문>에서는 플루토를 어릴 때도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약역만큼 책시하고 분위기 있는 캐릭터가 없다

### 3. 모고고 있는 키덜트 굿즈가 있나?

Q5: 굿즈는 너무 예뻐서 샀다. 실물을 보게 되면 반짝거리고 핑크빛으로 예뻐서 안사고 못배긴다. 가장 아끼는 제품은 <세일러문>의 변신 콤팩트와 치비문 지시봉 볼펜이다. 넵튠의 룬드(로드)도 세일러 룬드 중 가장 마음에 든다.

Q6: 요즘 컵 위의 00 시리즈가 유행하는데 마침 세일러문 20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플루토를 하나 구입했다. 보통 피규어, 장난감들은 따로 선반위에 정리해둬야 했다. 이 컵 위 00 시리즈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인 책상 위에 가깝게 둘 수 있어서 좋다.

Q7: <카드캡터 체리나> <꼬마 마법사 레미>도 굿즈를 판매하는데 피규어 위주로 형성되어있어서 종류도 별로 없을뿐더러 가격대가 좀 세다. <세일러문>은 화장품, 가챠(캐릭터)인형과 더불어서 뽀뽀 동근 캡슐 완구, 피규어, 요술봉, 펜, 폰케이스, 파우치 등등 여러 종류로 많이 나와 있어 쉽게 구할 수 있다!

### 4. 꼭 사고 말 것이다 하는 제품은?

Q8: <꼬마 마법사 레미>의 요술봉! 실사이즈보다 작은 것들도 많이 나와서 탐이 난다.

Q9: 세일러문 기념으로 나온 향수 패키지와 정말로 파우더가 들어 있는 세일러문 변신 콤팩트. (사진을 보여주며) 이전 <세일러문 ss>에 등장하는 '크라이시스 문 콤팩트'인데 소리고 난다. 영롱...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웹툰 미줄긋다 <유치원의 하루> 가바나



글,그림 가바나

“재현이는 선생님 사랑해요?” “네!” “얼만큼 사랑해요?” “어~ 사랑 열 개보다 더 많이~ 예쁜 나비의 날개만큼~ 그리고 딸기 한가득 만큼! 그만쯤 사랑해요~”

14화 이만큼 사랑해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시청하고 그만 남의 집 아기 '삼둥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꼬물꼬물하는 입술, 귀여워 죽을 것만 같은 토실토실 두 볼, 치명적인 애교로 무장한 아기들이 무려 세 쌍둥이이니. “내가 이 구역의 뽀뽀왕(자칭 온라인상의 엄마)이다”를 외치게 만드는 이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입안에 속 집어넣어 봤으면(별죄).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아기들 좋아해?’라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육아 예능을 보기 전에는 아기들이 무서웠고, 아기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나는 오히려 아기들보다 더 낮을 가리고 만다.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는 양쪽은 표정에 눈이 마주칠 때면 최대한 우호적인 표정으로 웃어본다. 하지만 아기들은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았다. 아기들에게 맞춰 양쪽은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다보니 아기들과 잘 놀아주는 사람들이 부러

울 뿐. 제3자의 입장에서 천사같이 웃는 아기를 보는 게 좋은 나. 천사들의 언어로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질까. 육아 예능을 섭렵하고서 이제는 다음 웹툰 『유치원의 하루』를 보면서 아기들의 귀여운 모습을 엿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유치원의 하루』는 유치원 선생님과 유치원 아이들의 일상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보여준다. 육아를 하는 엄마들, 유치원 교사들이 공감 백퍼를 외치고 갔으니 믿을 만 하다. 새로 온 실습 교사가 환술을 쉬자 재현이는 힘이 나는 하트를 준다고 말한다. 재현이는 ‘예뻐서 힘이 나는 스티커!’라고 외치며 명찰에 하트스티커를 붙여준다. 유치원 실습 교사로 읽는 독자도 힐링이 된다...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난감한 아기들의 행동과 돌발 질문들. 순수한 아기들의 모습 전부 보는 내내 엄마미소를 짓게 만들 것이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 Q1. 사회 인턴제도의 약용을 막을 대안으로 본고에서도 진행중인 사업은?
- Q2. 학술 최근 상용화되어 취미용으로 즐길 수 있는 드론은 000 드론이다.

### 추첨방법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연극<내사랑 은경씨> 티켓을 (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방문하여 주세요.

### 지나호 당첨자

- 505호 연극티켓 당첨자
- 최종민(기계시스템 2)
- 박승희(정보시스템 3)
- 이광호(한국어 9)

당첨자는 신문사로 방문해 연극티켓을 수령해 가지면 됩니다.



2015년, 당신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웃음과 감동**이 찾아옵니다

# 내사랑 은경씨

2015.7.10(금)~10.4(일)

극장 동국

연출 이육현 / 제작 및 기획 (주)진경엔터테인먼트 / 예매처 유엔티티 YES24.COM AUCTION

공영문의 1899-9498